



고대법대소식

제55호

2009. 10



◆ 법대 소식 ◆

● 교수 동정

김일수 교수

김일수 교수가 2009년 7월 31일(금요일)자로 3년 임기의 제7대 경찰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김 교수는 원헌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모교에서 법대학장, 특수법무대학원장, 법학연구원장을 지내고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 위원장, 안암법학회 회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9월 4일(금요일) 보호관찰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보호관찰 2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9월 10일(목요일)에는 혼인빙자간음죄의 합헌성에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하였다. 9월 25일(금요일)에는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독일 국제학술대회에서 「Punitivistische Tendenz inder gegenwärtigen Kriminalpolitik」이란 제목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하태훈 교수

하태훈 교수는 2009년 6월 3일(수요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과 인권실천 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하 교수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간섭을 막기 위해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효질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9년 7월 24일(금요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안효질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이용 시 주요 피해 사례인 청약철회·기술사양

· 과요금·계약해지·하자피해보상 등에 대해 분석하고 콘텐츠별로 다른 이용자 보호 내용을 통합할 표준약관 제정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상돈 교수

이상돈 교수는 대한병원협회가 2009년 5월 8일(수) 오전 10시부터 63빌딩 별관 3층 코스모스홀에서 개최한 제50차 정기 총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수가계약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하열 교수

법제처는 2009년 5월 1일(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으로 김하열 교수를 위촉했다. 김교수는 2년의 임기 동안 법령해석 안건 심의, 법령정비 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대희 교수

이대희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주한영국대사관,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7월3일(금요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란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인터넷상 저작물과 저작권 보호’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7월 28일(화요일)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영화인협의회 및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가 개최한 불법복제 근절 대토론회에서 곽승준(본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 교수가 각각 사회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대통령 직속의 ‘콘텐츠 보호·관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강국도약을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박경신 교수

박경신 교수는 2009년 6월 19일(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 설정’ 학술대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박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익명성을 침해한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명의도용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특성상 불법 정보 수사를 돕는 효과도 없고, 합법적 게시물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그리고 7월 28일(화요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와 참여연대 공익인권센터가 개최한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박 교수가 사생활 보호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압수수색영장 발급기준을 체포영장에 준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모든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과 동시에 제시,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통신·감청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할 것을 촉구했다.

● 2009년 후기 졸업식



2009년 8월 25일 화요일 제101회 후기학위수여식이 법과대학 501호에서 열렸다. 이번엔 학위를 받은 법과대학의 석·박사 학위 수여자 및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위논문

- 이상오**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남도환**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김동현**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및 참가적 효력에 관한 연구
- 김녹영** WTO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 관한 연구
- 차동욱** 근로자대표제의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최종혁** 국가배상심의회의 제도적 개선
- 박성용** 공법과 사법의 관계설정 및 개념차용 방

법론에 관한 연구

- 남승현** International Law in the Peace Process
- 김판기** 공물개념의 재정립과 기능론적 이해를 통한 공물법의 재구성
- 이원철** 행정법에서의 분쟁과 조정에 대한 연구
- 박현정** 헌법상 집회의 자유 인정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양희민** 양형에서의 사회봉사명령제도
- 이준희** 직장 내 집단 괴롭힘(mobbing)에 대한 연구
- 석호영** 정당보상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박윤석**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 이승훈**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최인성** 친양자제도의 개선과제
- 박동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김태이** Basel II의 수용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손여옥** 가정폭력범죄의 대응에 대한 형법정책적 대안
- 홍소현**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의 판단
- Jin Ling** 중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Cui Jin Lan** 動産擔保去來制度
- Li Jia Xin** Measures on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Maritime Terrorism

박사학위 취득자 및 학위논문

- 손영학** 한국과 중국의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
- 서규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 김봉수** 물건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 공수진** Precedent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김향란** 中韓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 지유미** M&A에 대한 형법정책의 방향

법대소식

박승재 기업형태의 선택과 법형식 中立的 과세 원칙에 관한 연구

오재창 국제법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한 연구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을 중심으로-

Dong Xin Yi 증권거래상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관한 한중간 비교연구 -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에 있어서 중국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국제법 관련 특강

2009년 5월 30일(토요일)에 오후3시에 법학관 신관 402호에서 국제법관련 특강이 있었다. 일본 규슈대학교의 Toshi KONO 법과대학 교수의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Human Rights"라는 제목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관심있는 학부생들과 일반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 한국경영법률학회 하계 특별세미나 개최



한국경영법률학회가 2009년 7월 14일(화요일)에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19층)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하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회는 최완

진(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진행하였고, 발표자로 이대회(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토론자로 최병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김병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상중(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참여하였다. 관심 있는 교수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 미국 로스쿨의 교육과 한국 로스쿨의 전망에 대한 특별강좌

2009년 9월 16일(수요일)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원의 주관으로 신법학관 401호에서 오후 3시 30분에서 5시까지 Jonathan Kang 교수(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의 <미국 로스쿨의 교육과 한국 로스쿨의 전망>에 대한 특별강좌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및 로스쿨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 Global Legal Clinic 포럼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Global Legal Clinic)는 [2009년 제5회 GLC FORUM - 인터넷상 자유와 책임]이란 제목으로 2009년 5월 27일 수요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동서파트너스 김보라미 변호사, 방희선(동국대 법대)교수, 이재교(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사회는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진행하였다.

최근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는 인터넷 상의 자유와 책임이란 큰 주제 아래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토론자들의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임시조치, 행정심판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관심 있는 고대인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5시에는 법학관신관 103호에서 <난민지위인정심사와 행정소송>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주제는 “난민지위인정심사 추세와 행정소송”으로 난민인권센터 최현근 팀장을 초청하여 난민 관련 최근 이슈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 외부인사 특강

2009년 9월 23일(수요일)에 법학관 신관 501호에서 오후 2시에서 3시 25분까지 법과대학생들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황건호 회장을 초청하여 '21세기 금융시장의 중요성과 금융지식으로 무장된 인재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특강이 개최되었다. 황건호 회장은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대우증권 부사장을 거쳐 증권업협회장을 역임한 후 통합협회 초대회장으로 2009년 2월 취임하였다.

◆ 법무대학원 소식 ◆

● 2009년 후기 졸업식



2009년 8월 25일(화요일)에는 일반대학원 및 법과대학과 함께 법과대학 법무대학원의 학위 수여식이 거행됐다. 학위취득자 명단과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위논문

- 정윤식**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과 주계약상 보증인간의 공동보증관계에 관한 연구
- 김소연** LBO(借入買受)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성수연** 의료정보의 공적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김자현** 위험사회의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산업안전보건법의 재구
- 정부균** 의료정보화에 따른 의료정보의 보호와

- 공개에 관한 법적 연구
- 송준석** 미국 바이오 의약품 특허 분석
- 박신욱** 特許侵害訴訟에서 否認 및 抗辯方法에 관한 研究
- 오준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 정우채**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문화기술의 사업화 촉진 방안 연구
- 장영표** P2P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김인호**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정당참여에 관한 연구
- 김민수** 지방선거의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지방자치단체장후보의 정당공천을 중심으로-
- 조동현** 지방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윤선미** 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시 관세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연구
- 최충단**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고찰 -특히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
- 최경진**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법적 연구
- 임서우** 通信産業에서 行政指導에 따른 不當共同行爲 研究
- 추완호**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박은영** 방송통신 분쟁조정에 관한 연구
- 이재철** 재산형 강제집행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민사절차 중심으로-
- 강형석**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제도를 중심으로-

● 법무대학원 2009학년도 전기 입학식

법무대학원은 2009년 9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법학관 신관 401호에서 2009년도 후기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대학원장인 채이식 교수를 비롯하여 다수의 법대 교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학생 소식 ◆

● 2009년 고연전 최종전적 2승 1무 2패로 비겨



올해로 39회를 맞아 2009년 9월 11일(금)과 12일(토) 양일에 걸쳐 진행된 2009 정기고연전에 본교는 2승(야구·축구) 1무(럭비) 2패(농구·아이스하키)를 기록했다. 이로써 모교는 정기전 역대전적에서 14승8무17패를 기록했다.

고연전 개막 경기인 야구는 명승부였다. 양 팀은 8회까지 엇치락뒤치락하며 잠실벌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2회 초 본교가 선취점을 내자, 연세대는 2회 말 2점을 뽑으며 경기를 뒤집었다. 양 팀은 5회와 6회에 각각 1점씩 올리며 팽팽한 경기를 펼쳤다. 8회 말까지 1점차로 뒤지며 패색이 짙던 본교 야구부는 9회 초 연속안타로 5대4로 역전승을 거뒀다.

농구는 참패였다. 본교는 경기초반, 연세대의 노련한 경기운영과 빠른 공격전개에 끌려 다니며 1쿼터에만 20점차로 뒤졌다. 연세대는 초반에만 5개의 3점 슈트를 합작하며 공격을 이끌었다. 본교는 2쿼터부터 체 기량을 되찾아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점수 차를 극복하진 못했다. 본교는 58대 74로 패해 정기전 5연승이 좌절됐다.

아이스하키는 아쉽게도 역전패했다. 1퍼리어드엔 양 팀이 접전을 벌였으나 점수는 나지 않았다. 2퍼리어드가 시작하면서 연세대의 골문을 공략한 결과 5분 만에 선취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잡았다. 하지

만 8분 후 연세대에 중거리 슈트를 허용하며 다시 1대 1로 따라 잡혔다. 3퍼리어드엔 연세대의 속공에 연달아 2실점하며 무너졌다. 이후 박상진(사범대 체교 08) 선수의 득점으로 1점을 따라갔지만 종료 5분여를 남기고 추가 실점해 2대 4로 졌다.

럭비에서 우리 선수들은 추가시간에 동점을 허용하며 다 이긴 경기를 놓쳤다. 본교는 초반에 7대 0으로 리드했다. 연세대에 트라이를 허용해 5점을 내렸으나 본교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3점을 더 벌였다. 전반전은 10대 8로 끝났다. 후반엔 연세대가 주도권을 잡아 10대 11로 역전 당했다가 서인수(사범대 체교07) 선수가 트라이를 성공시켜 다시 15대 11로 경기를 뒤집었다. 우리 팀은 18대 11까지 앞섰지만 연세대 선수들이 종료직전 추가시간에 킥을 연달아 성공시켜 동점을 허용했고 게임은 18대 18로 끝났다.

축구 경기에서 본교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 선수들은 뒤흔 날았다. 전반 13분 양준아(과기대 사회체육08)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아크 정면에서 감아 차 연세대의 골문을 열었다. 이어 후반 7분, 본교는 유준수(사범대 체교07) 선수가 골문 30m 지점에서 찬 중거리 슈트가 그대로 골대에 빨려 들어가 점수 차를 2골로 벌리며 승기를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소 거친 수비로 연세대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실점했으나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며 2대 1로 이겼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끝난 후에는 재학생과 교우들은 잠실에서 안암동으로 이동, 올해도 어김없이 <1905페스티벌>을 열었다. 올해 고연전 공식뒤풀이 행사는 신촌에서 있었지만 재학생들은 <1905페스티벌>을 더 많이 찾았다. 참살이길에 땀 흘린 43개 주점에는 1만5천명의 교우 및 재학생들이 모여 선후배 사랑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 법제처 '로스쿨생 여름인턴' 수료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4일 법제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첫 번째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름 인턴과정'을 마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 하영진(23)씨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하씨는 인턴과정 동안 실제 법령안의 심사업무와 법령해석 관련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법제처 내 각 부서에서 순환 근무를 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하씨는 "법령심사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참관하는 등 법제업무를 경험하면서



▲ 임병수(오른쪽)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14일 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 로스쿨생 인턴과정을 수료한 허영진씨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생생한 현장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사전적인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7월1일 16개 법학전문대학원들과 실무 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으로 7월 15일부터 한달 간 시범적으로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했다.

● 제16·17기 튜터링 프로그램

본교 법과대학의 2009년도 제17기 튜터링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제16기 튜터링 프로그램은 2009년 6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21일 금요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됐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습을 보조해 주는 튜터(tutor)와 신청한 튜티(tutee)가 한 팀이 되어 함께 공부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선배들을 통해, 학습의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미 15기 동안의 활동을 통해 유익한 성과를 거둔 많은 재학생들이 튜터링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증명해왔다.

2009년 가을학기부터 제17기 튜터링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기간은 2009년 9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11일 금요일까지 총 12주간이다. 튜티 신청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학생 또는 법학 복수/이중전공의 타전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튜티 신청은 사법시험 합격자이거나 사법시험 재시이상 경험자 중 저학년 학생들에게 법학일반 및 수험생활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성실한 학우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튜티 선발은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튜터링 지도 교수가 직접 선발한다. 제17기 튜터와 튜티들은 2009년 9월 21일 월요일 첫모임을 가졌다.

◆ 교우회 소식 ◆

□ 2009年度 會長團 連席會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회장 주선희/법65)는 2009년 7월 6일 월요일 오후 7시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아이리스크룸에서 주선희 회장을 비롯하여 이기수 명예회장, 이근웅 상벌위원장, 채이식 법과대학장 외 부회장 20명 등 포함한 총25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운영상황 보고와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교우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상반기 법과대학 후원금 2천만원을 채이식 법과대학장에게 전달하는 등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2009년도 하반기 영진교우들에 대한 수여안을 승인하였고 영진 축하선물을 보냈다.

□ 영진축하蘭 발송 교우 명단(2009년 하반기)

성명	학번	영진직책
이진강	법62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일수	법65	경찰위원장
이상옥	법69	대한조선 회장
이경재	법73	법무부감찰관
노환균	법75	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법77	서울고검장
곽상옥	법77	서울서부지검장
길태기	법78	광주지검장
정동민	법79	대검 공판송무부장
최고일	법80	법무부 검찰국장
박성재	법81	대구지검 제1차장
이득홍	법81	제주지검장

교우회소식

교우소식

□ 任員分擔金(年會費) 納入 計座

은행계좌	신한은행 140-008-43853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분담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 자문역 : 500,000원/년 ○ 회장 : 3,000,000원/년 ○ 부회장, 감사 : 1,000,000원/년 ○ 이사 : 100,000원/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주소 : (137-885)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9-4 양진빌딩 303호
전화 : 02-3482-7011, 팩스 : 02-3482-0071

※ 문의사항이나 주소 등 변경이 있으신 분은 총무이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 이 현 규(법80)
전화 : 02-536-8100,
팩스 : 02-536-8132
이메일 : proslee7@naver.com

◆ 동기회 소식 ◆

● 법대 59학번 입학 50주년 모교방문행사

2009년 5월 11일(월)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법과대학 59학번 입학 50주년 기념 모교방문 행사가 개최됐다. 이기철교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현승중 재단이사장과 이기수 모교총장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200여명의 교우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기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희의 연세에 가족과 함께 모교를 찾은 선배를 만난 반가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선배들이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기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학시절 법과대 학생회장을 역임한 오평한 모교방문 추진위원장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금액을 초과한 기금이 모여 여유있는 행사 준비가 가능했다”며 “멀리 미국과 일본에서도 모교방문을 위해 찾아온 교우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창록 법대 59학번 교우회장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 모교를 다시 찾으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입학 30주년 모교방문 행사 당시의 감회를 시로 써 등단한 권이영 교우가 입학 50주년 모교방문 헌시를 낭독해 교우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재학시절 추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상영된 큰 호응을 얻었다.

● 법대 63동기 등산회



법대 63동기 등산회(회장=최병지) 회원 13명은 2009년 5월 3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에 올랐다. 최병지 회장은 “회원들이 등산하기 전 각자 술과 안주를 준비해 하산하면서 함께 즐겼다. 소문난 맛집도 찾아 별난 맛의 음식도 맛볼 수 있었다.”며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동기들이 따스한 정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말했다. 법대 63동기 등산회는 97년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빠짐없이 산행을 하고 있다.

◆ 화제의 교우 ◆

세계최초로 도시를 주제로 한 축제를 총괄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사무총장 오홍식(행정74)교우



12m규모의 ‘트로이 목마’가 재현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오두막 ‘로지’(Lodge)가 설치된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삼바축제 ‘리오카니발’팀이 퍼레이드를 펼친다. 동물원에는 로봇 동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관광객은 로봇과 악수하거나 직접 움직여 볼 수

도 있다. 인공 디지털 트리(tree)는 자연 가로수 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먼 미래나 유토피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이하 도시축전 2009. 8.7~10.25)의 모습이죠. 어제와 오늘, 내일의 세계 도시와 문화가 인천 송도로 모입니다.” 도시축전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오홍식(행정74)교우가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도시가 국가를 대표하는 시대입니다.”라며 “이번 행사는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은 한 걸음입니다.”라고 했다. 호놀룰루의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에서 공부하던 오교우는 2년 전 이번 행사를 맡기 위해 귀국했다.

그는 인천시 이사관을 지낼 당시 125억 달러의 외자유치와 기업의 투자를 얻어 1600여 만 평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만들었다. 여의도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송도에 첫 삽을 뜬 사람도, 나무를 가장 먼저 심은 사람도 오 교우다. 이번엔 그 땅위에 행사비용 1500억 원 규모의 축제를 기획했다. 송도의 아담(Adam)이자 아버지인 셈이다.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에는 이곳 행사장이 바다로 표시됩니다. 자동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어도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이런 곳에 송도신도시가 들어서고 제 손으로 세계적인 행사를 벌인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합니다.”

도시를 주제로 한 세계최초의 행사를 기획하자 국제 여러 도시의 호응이 쇄도했다. “인천에서 초청하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의 각국에서 자기 도시를 알리고 싶다는 흔쾌히 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미래 도시를 생각하기 위해 고민했어요. 기후변화에 대응

교우소식

하기 위한 친환경 제품과 바이오 에너지 산업을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었습니다.”

오 교우는 초대형 축제를 기획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도시축전을 기획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소재를 찾기 위해 한국의 축제는 모두 다녀왔어요. 꽃, 나비, 진흙 축제까지요. 사라고사나 일본의 축제도 참고할 만한 곳은 다 돌아다니고 도시축전을 준비했어요. 세계에 내 봐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말대로 행사기간동안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미래 도시의 계획부터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녹색성장과 세계 환경포럼까지 주최한다. 역사, 문화, 예술 등 도시에 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 교우 동정 ◆

2009년 7월 9일 헌정회 회장을 지낸 **이철승**(법학38) 교우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집단학살 종식을 위한 세계적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경기도 의회는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고문에 **전기성**(행정56)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 교수를 새로 위촉했다.

서울문학 시부문 신인상에 **한석관**(법학59) 교우가 당선됐다. 국제환경경영연구원 원장인 한교우는 4·19혁명을 주제로 한 <4월이 오면>이란 작품을 통해 문단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됐다. 한 교우는 “삶의 철학과 이념을 시심에 담아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길 원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일동제약은 2009년 7월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종식**(법학62) 교우를 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교우는 한국투자공사를 거쳐 증권감독원에서 재무관리국장, 공보업무국장, 검사4국장 등을 역임한 뒤, 삼성증권에서 감사로 재직했다.

2009년 6월 9일 **김성호**(법학68) 교우가 행복 세상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법고시 16회로 공직에 입문, 춘천지검장, 대구지검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등을 차례로 역임한 김교우는 “한그루의 나무를 정성스레 심는 사회만이 행복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한국외대 교수인 **이장희**(법학69) 교우가 2009년 8월 5일(수)부터 이틀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중국의 역사왜곡과 국내역사 NGOs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내역사 NGOs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리고 8월 22일 덕성여대 평생교육관 406호에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평가’라는 주제로 한일 NGO 국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키움증권 부회장인 **김봉수**(법학70) 교우는 2009년 6월 2일 금융투자협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금융투자회사 CEO 대학 릴레이 특강’의 일곱 번째 강사로 본교 경영대 강당에서 강연했다. 김교우는 “빠르게 돌아가는 금융시장에선 원칙을 지키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회의회는 (주)삼우ENI 대표이사 **조옥환**(행정 70) 제7대 회장을 정기총회(6월24)일에서 제8대 회장에 재추대하였다. 제8대 회장은 2009년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2011년 6월30일 임기를 종료한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인 **서현수**(행정70) 교우가 2009년 6월 30일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공무원생활을 마감했다. 서 교우는 30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생활하며 본청 조사기획과장과 조사국장 직무대리, 서울청 조사2국장을 거쳤다.

민주당 대표인 **정세균**(법학71) 교우가 2009년 5월 16일 오후 모교에서 열린 제48회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참석해 ‘Korea Dream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염재호(행정73) 교수는 2009년 5월 5일(화)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시민포럼 2009(WCF2009)의 미래대학 라운드 포럼에서 사회를 맡았다. 세계시민포럼(WCF)은 경희대학교가 개교6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경제사회국(UN DESA)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포럼이다.

국세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행정74) 교우는 2009년 6월22일 오후 국세청에서 어용바타르 몽골국세청장과 제7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의 주요 국세행정 동향과 몽골의 세정 선진화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충청일보 편집국장인 **이관해**(행정73) 교우가 2009년 5월 6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초대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이 교우는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이사대우 총무국장을 지냈으며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투자유치 TF의 전문위원을 맡았다.

2009년 7월 **송영중**(법학75) 교우가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임했다. 송교우는 지난 1980년 노동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에 현 이용자보호국장 **이기주**(행정78)교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에 현 융합정책관 **서병조**(행정78) 교우를 각각 1급으로 승진 발령한다고 2009년 6월 7일 밝혔다. 출범 1년차 초기 조직안정화, 법제정비에 방점을 뒀던 방통위는 이번 전환을 맞아 앞으로 기능확대, 산업진흥 확대에 최대 역점을 둘 것이란 평가다. 두 교우 모두 과거 정통부에서 정보통신 정책, 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며 조직 내 외연확대를 주도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방통위 내부는 물론 관련업계의 기대가 크다.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에 **이종호**(행정78)교우가 임명됐다. 이교우는 행정27회로 재무부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으로 전입해 서기관 승진이후 충주·천안세무서장, 중부청 조사상담관과 국세청 정보개발2과장을 거쳐 국세청 법규과장직을 맡아왔다.

오세훈(법학79) 서울시장은 2009년 6월 11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 1층 인도양 9홀에서 ‘2009어르신일자리박람회’를 열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람회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진중인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리고 중랑구 망우동 낙후 그린벨트지역에 18만㎡로 조성되는 중랑생태문화공원의 공식이름을 ‘중랑나들이숲’으로 확정하고 7월 27일 착공식을 가졌다. 오 교우는 “중랑, 노원, 성북, 동대문, 광진의 동북부 5개구 200만명 주민들은 내년 여름부터 ‘중랑나들이 숲’에서 열대야의 불쾌함을 날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7월 30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남선진봉사단 발대식에서 **이재호**(법학88) 교우가 연합단장으로 임명됐다. 이 교우는 제 23회 사법고시에 합격, 1983년부터 천안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우는 한국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 위원장, 사립학교 교원연합회 법률고문, 호서대 법학과 겸임교수등으로 활동해 왔다.

◆ 영진 교우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진강 교우(법62)



2009년 8월 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교우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 통신 콘텐츠의 공정성과 선정성 등을 심의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민간독립기구다. 이교우는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재직하면서,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재수사와 5공 비리 수사 실무를 맡아 원칙과 소신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직하고 공정한 검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사 퇴임 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 고대여자교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인 나길자교우(법62)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 주요 약력

본교 법대 졸업 / 제5회 사법시험 합격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장 / 서울지검 동부지청 차장 /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경찰위원장 김일수 교우(법65)



김일수 교우가 2009년 7월 31일(금요일)자로 3년 임기의 제7대 경찰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김교우는 원헌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모교에서 법대학장, 특수법무대학원장, 법학연구위원장을 지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 위원장, 안암법학회회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주요 약력

본교 법대 졸업 /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 독일 뮌헨대 법학박사 / 본교 법대 정교수 / 법무부 형법개정심의위원 / 법제처 정책자문위원 / 낙태반대운동연합 대표 / 본교 법대 학장 /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장 / 국무조정실 국정평가위원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 형사법학회 회장 / 기독교교도소설립 재단법인 아가페 부이사장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보호관찰학회 회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검·경 수사권조정위원회 위원장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 통합형사사법정보체계구축기획단자문위원회 위원장 /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장

◎ 주요저서

법·인간·인권 / 한국형법 I, II, III, IV / 사랑과 희망의 법 / 법은 강물처럼(칼럼집) / 새로쓴 형법총론 / 새로쓴 형법각론/ 우리시대의 자화상(칼럼집)

영진교우

대한조선 회장 이상욱 교우(법69)



대한조선은 2009년 7월 23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교우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교우는 산업은행을 거쳐 STX조선 재무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재무통으로 STX대표이사, STX에너지 대표이사 및 총괄 부회장을 지냈다.

◎ 주요 약력

한국산업은행 / STX조선(주) / 재무본부장 / STX(주) 대표이사 부사장 / STX(주) 대표이사 사장 / STX에너지(주) 대표이사 사장 / STX에너지(주) 부회장 / 대한조선(주) 회장

법무부감찰관 이경재 교우(법73)



2009년 9월 10일 법무부 감찰관에 취임한 이경재 교우(법73)는 온화한 성품과 원칙적인 일처리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검사로서 검찰 선후배 사이에 신망이 매우 높다. 특히 살인 등의 강력사건과 조직폭력배 및 마약사건 분야에서의 수사능력과 실적이 뛰어나 검찰 내에서 소위 '강력통'으로 불린다. 부인 전해숙 여사(53세)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장남인 호종균도 본교 졸업생으로 고대가족이기도 하다.

◎ 주요 약력

대전출생 / 본교 법대 졸업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 대구·수원지검 강력부장 /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역임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교우(법75)

노환균 교우(법75)가 2009년 8월 12일 서울중



양지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노환균 교우는 '법질서확립'과 '민생보호'를 모토로 "법질서를 확립해 국민이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게 검찰의 사명"이라고 취임 소

감을 밝혔다. 노환균 교우는 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88년동부지청 검사로 시작하여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후 2009년 2월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뒤로하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영진하였다.

◎ 주요 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 법무부 검찰 3과장 /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장 / 대검찰청 공안1과장 /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2부장 /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 서울고검 검사 /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 울산지검장 / 대검찰청 공안부장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장 박상욱 교우(법77)



2009년 8월12일 법무부 정기인사에서 박상욱 교우(법77)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박교우는 법무부 감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무부 및 검찰의 내부 공직기강을 확립하였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영진하였다.

◎ 주요 약력

본교 법대 졸업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검 검사 / 부산 동부지청 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대검찰청 감찰과장 / 서울지검 형사3부장검사 /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창원지검 차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 법무부 감찰관

서울고등검찰청장 한상대 교우(법77)

2009년 8월 12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한 한상대교우(법77)는 예리한 판단력과 선이 굵은 리더쉽으로 검찰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신망과 평판을 받고 있으며, 정도를 걷는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미국 법학석사를 취득한 후 초대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역임

하는 등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 감각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1985년의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 2002년 병풍관련 김대업 구속사건, 2004년 부산항운노조 비리사건 등 대형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여 수사검사로도 남다른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부인 박현선 여사(46세)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으며, 장녀 혜준양은 본교 재학생으로 高大가족이기도 하다.

◎ 주요 약력

서울출생 / 본교 법대졸업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검 검사 / 대검 연구관 /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 법무부 검찰국 검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 / 서울중앙지검 형사1,3,8부장 / 부산지검 1,2차장검사 / 법무부 법무실장 / 법무부 검찰국장 등 역임

광주지검장 길태기 교우(법78)



2009년 8월 12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한 길태기 교우는 장학노 비리사건, 한보 특혜 비리사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비리사건 등 주로 특수·강력 수사에 일가견 있다고 평가받는 검사로, 대검 공판부장 재직 시에 대법

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형기준을 만드는 등 사법효율화에 앞장섰다. 조용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갖고 있으며 직원들과 격의없는 대화로 조직을 이끌면서도 일처리만큼은 공정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해 선비형 검사라는 평으로 조직 내외의 신망이 두텁다. 가족관계로는 처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주요 약력

서울 출생 / 본교 법대 졸업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대검찰청 연구관 /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 대구지검 강력부장검사 / 특수부장검사 / 대검

찰청 형사과장 / 법무부 공보관 /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 광주지검 차장검사 / 대검 공판송무부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현)

대검 공판송무부장 정동민 교우(법79)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된 정동민 검사장(사시 26회·연수원 16기)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금성고와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안과 특수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연구기획능력과 통솔력·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 탁월한 팔방미인형이라는 평이다. 건설업자 김상진씨 로비의혹사건을 지휘해 정운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전군표 전 국제청장 등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 주요 약력

경남 양산 / 금성고·고려대법대 / 사시 26회 / 부산지검 검사 / 영덕지청장 / 제주지검 부장 / 청주지검 부장 / 대구지검 공안부장 / 수원지검 공안부장 / 대검찰청 공보관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 부산지검 2차장 / 서울동부지검 차장 / 광주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최고일 교우(법80)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최교일 교우는 온화하고 낙천적인 성품으로 기획능력이 뛰어나며 지휘통솔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대학교수와 학원이 조직적으로 연계된 이화여대 체육학부

입시비리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사건을 잡음 없이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MBC 피디수

영진교우

첩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무부 정기인사와 함께 서울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최 국장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건립을 주도, 검찰 수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했다. 가족은 부인 이홍채(42)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주요 약력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 공군 법무관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사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LL.M. 과정 이수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법무부 범죠편역정책과장 / 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장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 서울고검 차장검사 /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지검 제1차장 박성재 교우(법81)



이번에 대구지검 제1차장으로 영진한 박성재 교우는 자상하면서도 엄정한 성품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정의감이 투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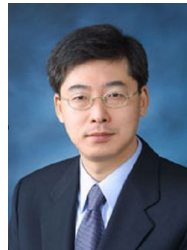
과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해 기업관련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업무처리에 있어 열정이 강하고 지휘통솔력과 업무추진력도 뛰어나다.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으로 친화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부인 심은실(46)씨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 주요 약력

본교 법대 졸업 / 사시 27회(연수원 17기) /

서울중앙지검 검사 / 동부지청 부부장 / 강릉지청 부장 / 대검 검찰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대검 감찰2과장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 김천지청장 / 법무부 검찰담당관 /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이득홍 교우(법81)



2009년 8월12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 취임한 이득홍교우(법81)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부하직원들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 조직내 신망이 높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 스타일로 검찰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종합적인 대책마련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재직 때 세계에서 3번째로 모발감식을 통해 1년전 대마 흡입 사실까지 밝혀내는 감식기법을 개발해내는 등 과학수사기법에도 정통하다.

◎ 주요 약력

대구출생 / 본교 법대 졸업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검 검사 / 진주지청 부장 / 대구지검 강력·특수부장 / 대검 감찰2과장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 수원지검 특수부장 / 서산지청장 /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역임

◆ 교우 신간 ◆

● 노동법 (제18판 - 신판 제5판) / 김형배 (법53, 법과대학 명예교수)



경제현실과 국제거래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각종의 보호와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노동관계법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국가에 있어서 공통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노사관계제도도 내용적으로나 법기술적으로 그 모습을 달리해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판에서 저자는 개정된 법령을 비교적 소상하게 반영하면서 개정내용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붙였다. 특히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에 관해서는 상호 이를 대비하면서 기존의 서술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또, 노동법의 이론적 부분과 관련하여 특히 근로3권 보장의 법적 효과, 양심의 자유, 채용내정, 사용자의 질의·조회(권)과 근로자의 고지의무, 균등대우에 관한 종합적 고찰, 당연퇴직사유 등에 관하여 새로 집필하거나 그 내용을 보완·수정하였다. 그리고 최신 판례에 대해서는 2008년 말까지의 중요 대법원 판례를 거의 모두 반영하였으며, 하급심판례 중 행정법원의 주목할 판례도 나름대로 선정하여 인용하였다.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저자의 간단한 평석을 붙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의 세계화·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선진외국의 제도나 이론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 법의 해석이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박영사 1178면]

● 회사법[상법강의Ⅱ] (제8판) / 이기수(법65, 법과대학 교수·모교 총장), 최병규(법81), 조지현(법86) 교우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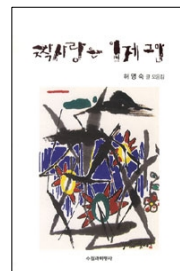
2009년 회사법 7판이 발행된지 1년이 지난



동안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09년에는 상법과 상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나머지 상법의 회사편 개정안의 내용은 역대 어느 개정보다도 방대하면서도 획기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검토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회사법 제8판은 2009년 1월과 5월의 상법개정과 2009년 2월의 상법시행령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과 그 시행내용을 반영하였다. 저자는 변화하는 주변경제상황에서 경제생활의 실상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꾸준한 업데이트 작업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영사 827면]

● 짝사랑은 이제 그만 / 허영숙(법58) 교우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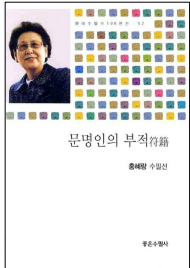


2008년 수필과 비평의 신인상으로 등단한 작가 허영숙 교우의 글 모음집<짝사랑은 이제 그만>이 출간됐다. 칠순을 맞이한 허 교우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소녀시절부터 품어온 문학에 대한 꿈의 흔적을 쫓겨 인생의 표정으로 남기는 작업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문학에 대한 미련을 저버리지 못했던 허 교우는 30년 동안의 가정생활 틈틈이 상이 떠오르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쓰여진 작품들을 추려 수필, 시, 소설, 동화 4가지 장르로 나뉘어져 총40여개의 작품이 이 책에 수록됐다. 이 작품들을 읽고 있으면 그녀의 따뜻한 감성과 섬세함을 느낄 수 있다.

[수필과 비평사 260면]

● 문명인의 부적 符籍 / 홍혜랑(법59) 교우 저



‘수필은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마음만 먹으면 직접 쓸 수도 있는 가장 친근한 문학이다. 다른 영역의 문학이 영상 매체에 밀려 신음하고 있는 중에도 수필 인구만은 날로 증가하여 가야흐로 수필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시대적 추세에 힘입어 수많은 수필전문지, 수필동인지가 창간되고, 이에 비례하여 신진 수필가도 날로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그 많은 작가,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문학성 높은 작품을 가려 읽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작가에게나 독자에게나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필을 연구하는 후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좋은수필사』에서 문고본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시대를 대표할 만한 수필가 100인을 선정하고, 작가가 자선한 40편 내외의 작품을 수록한 문고본을 발간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 취지에 꼭 알맞은 대로 제26회 현대수필문학상을 수상하고, 수필문우회, 한국비평문학회, 국제펜클럽 회원으로 활동중인법과대학 89학번 홍혜랑 교우의 「문명인의 부적 符籍」이 발간되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우리는 기술과 예술을 모두 ‘art’라고 발음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예술이 될 수 없다. 예술이 되려면 자연을 얻어야 한다. 자기 안의 속기(俗氣)를 털어내는 길은 자연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길 밖엔 없다고 이 책은 말한다. [좋은수필사 / 190면]

● 형법사례연습 (제3판) / 하태훈(법77, 법과대학 교수)

법과대학 하태훈 교수의 형법사례연습이 개



정을 거듭했다. 저자는 “2009년은 향후 법조인 양성에 대변혁을 가져올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여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해다. 무엇보다도 올 해

사법시험 1차 합격인원이 줄었으며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수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든 (형법)사례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훌륭한 법조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들을 형법적 시각에서 쟁점화하고 이를 형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사례연습이므로, 새로 추가한 사례도 기존의 사례처럼 대법원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실무형 사례이다.“라는 머리말 하에 개정판에서 수험생들의 의견과 문제제기, 독자들이 발견한 오타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다고 한다. [박영사 495면]

● 행정법신론(제13판) / 류지태(법77, 법과대학 교수), 박종수(법89, 법과대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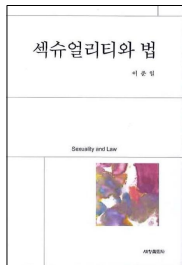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앞으로 있을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의 실시 등 변화한 외부제도에 부합하여야 하는 문제, 행정법이론 공부 외에 실무적 내용을 동시에

중시하여야 하는 내용구성의 문제 등 간단히 정리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저자는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깨달음하에 보완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반영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번 개정판부터는 각주의 외국문헌 표기를 과감하게 삭제하였고(해당부분 외국문헌의 출처와 전거는 이 책의 이전 판을 참조), 서술내용 전반에 걸쳐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함은 물론, 관련 판례의 요지를 서술내용의 본문 해당부분에서 직접 설명하는 등 외형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부관의 하자과 권리구제 문제나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위법성 개념 등 내용적인 면에서 수정을 가한 부분이 있다고 저자는 밝혔다. [박영사 1287면]

● 섹슈얼리티와 법 / 이준일(법85, 법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이준일 교수가 2009년 9월 인권과 관련한 또 하나의 책을 세상에 내었다. 저자는 서문에서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한 트랜스젠더가 최종결선에 올랐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죽을 만큼 울었다”는 그녀의 고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는 분명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태어날 때 그녀가 갖고 있던 성기(sexual organ)에 따라 결정된 성별(sex designation)을 평생토록 그녀에게 강요했다면 그녀는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란 문제 제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세상에는 많은 소수자(minorities)가 있지만 섹슈얼리티(sexuality)와 관련된 소수자들 만큼 가혹하지만 가려진 현실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집단도 없다. 섹슈얼리티의 배후에는 늘 ‘편향된(biased) 도덕’이 자리잡고 있고, 도덕처럼 변화되기도 어렵고 심지어 이중적이기까지 한 규범도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세 집단의 소수자들(트랜스젠더, 동성애자, HIV감염인/AIDS환자)을 다루고 있다. 자칫 진지하고 차분한 논의는 빠진 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가십과 ‘마케팅’으로 포장된 상업적 이용만 난무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이성적 논의의 지평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세창출판사 329면]

● 로스쿨 금융법 / 정찬형 법과대학 교수, 김용재 법과대학 교수 외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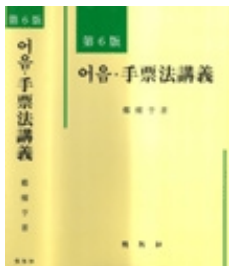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모두 포괄하는 「금융법」 책이 학계 및 실무계에서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책이 지금까지 발간되지 못한 것은, 그 내용이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섭해야 하면서 그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정찬형 교수의 로스쿨 금융법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위 분야의 모두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에 해박한분이 드물며, 따라서 어느 특정인이 이러한 금융법을 집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금융법을 집필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오랜 동안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고 또한 저자의 지도로 이 분야에 관하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아 이론에도 해박한 崔東俊 博士(현재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상임감사)와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에서 금융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금융법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金容載 교수와 함께 책을 썼다고 한다. 원래 저자들은 이 책을 (기본적으로) 이론서로서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로스쿨이 출범되고 또한 많은 로스쿨의 교과목에 금융법이 설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로스쿨에서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특히 금융거래법에서) 사례(판례) 위주로 이 책을 집필하여 책명을 「로스쿨 금융법」으로 하였다. 저자는 머리말 말미에,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금융법에 대하여 더 큰 관심

과 흥미를 갖고 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 고 기원하였다.

[박영사 754면]

● 어음·수표법강의 (제7판) / 정찬형 법과대학 교수 저



정찬형 법과대학 교수의 ‘어음·수표법강의’신판은 제6판 출간(2006. 2. 28) 이후 새로 제정되었거나 (특히 2006. 4. 28. 법률 제 7929호로 공포된 전자금융

거래법 등) 개정된(ICC은행 위원회가 2006년 10월 파리총회에서 개정하고 2007. 7. 1부터 시행되는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을 반영하고, 제6판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의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5일까지의 대법원판례)를 빠짐없이 보충하여 제6판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였다.

[박영사 949면]

● 한국웹의 불편한 진실 / 김기창 법과대학 교수 저



당신은 우리나라에서는 왜 수많은 웹브라우저 중에서 유독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인터넷 बैं킹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나라 웹 서비스는 왜 전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거의 채택하지 않는 액티브엑스 플러그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되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IT강국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인

터넷 공급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책은 왜곡된 웹 문화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한국 웹의 치명적 결함을 지적하고,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 बैं킹에 반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기창 교수의 주장을 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리서치 216면]

● 해상사고 선주책임제한 주요 해외 판례집 / 박경신 법과대학 교수 저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호의 충돌로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전에 국내 최악으로 기록됐던 1995년 씨프린스

호 사고로 유출된 기름 5천여 톤의 두 배가 넘는 1만여 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태안 해안을 뒤덮은 것이다. 이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인선단 운용사 측은 법원에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사고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사고에 대한 선주들의 손해배상 책임 액수를 그 배의 톤수에 비례하여 제한하는 선주책임제한을 배제한 판례들을 가감 없이 소개하고 있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해상사고 손해배상제한제도를 두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기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는가는 지역경제의 문제나 환경보전의 문제를 떠나서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이다.”

[고려대학교 출판부 518면]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 책 읽지 않는 대학생



안수화 변호사
(法 77)

필자가 속해 있는 변호사협회에 몇 개월 전 모경찰서로부터 당 협회 소속 변호사 중에 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고소 대리를 남발하는 변호사가 있다며 진상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깜짝 놀라 해당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니 어떤 외국 업체로부터 인터넷상에서 불법 다운 로드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고소인을 대리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 29조에 의하면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29조의2에 의하면 변호인 선임서를 미제출하고 변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주지시켰더니 부랴부랴 수백건에 달하는 고소 대리 선임서를 정당 절차를 밟아 경찰서에 제출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변호사가 변호사법의 규정을 잘 모르고 실수한 것이라 마음 씩씩하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수습했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일간신문의 1면 기사의 제목이 심상치 않다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 무슨 일인가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국회의원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가 법을 제정하는 입법 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저작권법 개정을 통과하고서도 국회의원 개인의 활동이나 의정 활동 내역이 신문이나 방송국에서 보도되면 그

저작권은 엄연히 해당 신문이나 방송에 있다 할 것임에도 아무런 사전 허락이나 양해없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의정활동 선전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으며, 더 가당치 않은 것은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였더니 자신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만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위 두 가지 해프닝은 특별히 전문직에 있거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창하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니 하는 것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제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청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떠한 사회가 건전한 사회인지 아닌지, 선진국형 사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많은 사회학적 판단과 요인이 있겠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제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계절에 우리의 본분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모교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학생의 본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넓혀 나가야 할 때라 할 것인데 과연 우리 후배님들은 얼마나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느새 기성세대가 되어 버린 내 눈에는 내 자식도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요즈음 젊은이들이 도무지 책을 읽기보다는 인터넷, 영화, 뮤직 비디오 등 시각적인 매체에 시간을 모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정보센터

교우님의 직장주소나 자택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고대법대교우정보센터 (전화:02-3290-1294, 팩스: 02-923-2991, E-mail : lawkorea@korea.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의 동기회 주소록이나 직장별 주소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5호부터는 더 이상 인쇄물의 형태로 발간되지 않습니다. 금번 55호는 교우정보센터 홈페이지(www.korealawschool.com)에 웹진과 같이 게시됩니다. 이메일로 웹진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 학번 및 이메일 주소를 교우정보센터(lawkorea@korea.ac.kr)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대법대소식

제 55 호 (2009. 10)

발행인: 채이식 법과대학장 편집위원: 김하열 법과대교수 편집간사: 곽준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정보센터
(Homepage : <http://www.korealawschool.com>)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전화 : (02) 3290-1294

팩스 : (02) 923-2991

E-mail : lawkorea@korea.ac.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137-88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19-4

양진빌딩 303호

전화 : (02)3482-7011

팩스 : (02)3482-0071